

#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을 적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과 : 일개 대학 2학년 학생 대상으로

이지혜<sup>1</sup>, 문숙자<sup>2\*</sup>

<sup>1</sup>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sup>2</sup>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Effect of Classes Applying Non-face-to-face Havruta's Activities on Communication Competency,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Immersion in Nursing Students

Ji-Hye Lee<sup>1</sup>, Suk-Ja Moon<sup>2\*</sup>

<sup>1</sup>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Ulsan College

<sup>2</sup>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Mas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연구이다. 연구는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수집은 간호대학생 69명의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로,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 전후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 전에 비하여 후에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이 유의하게 상승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을 수업에 적용하고 싶은 교수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간호, 하브루타,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Abstract** This study is a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study to confirm the effect of non-face-to-face Havruta's activities on communication competency,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immersion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21. The collected data were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of 69 student nurses.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and paired t-test using SPSS 24.0 program. As a result, the subjects' communication competency,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immersio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non-face-to-face Havruta's activities compared to b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ful basic data for professors who want to apply non-face-to-face Havruta's activities to their classes in the future.

**Key Words** : Nursing student, Havruta, Communication competency,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immersion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대학의 일반적인 수업 운영의 형태가 되었고,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도 온·오프라인 수업의 병행이 예측된다. 이에 비대면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업 방식의 시도와 학습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1]. 성공적인 비대면 수업은 학생이 온라인 상에서 주도적인 목적

\*Corresponding Author : Suk-Ja Moon(msj@masan.ac.kr)

Received April 6, 2022

Accepted July 20, 2022

Revised June 10, 2022

Published July 28, 2022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의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이러한 맥락으로, 성공적인 비대면 수업을 위한 교수자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면서 학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브루타(Havruta)는 가르침과 배움이 학생과 학생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3], 짝을 이루어 질문, 대화, 토론, 논쟁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경청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다[4]. 하브루타의 수업모형은 주로 질문 중심, 논쟁 중심, 비교 중심, 친구 가르치기, 문제 만들기의 다섯 유형으로 나뉘는데 [5], 두 개 이상의 유형이 통합된 형태가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6].

하브루타는 기존 전통적 교육문화의 한계에 대한 대안 뿐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육성의 방안으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과목과 대상자에게 적용되고 있다[7]. 국내 간호학과 학생 대상으로 하브루타를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8], 학습몰입[9], 학업적 자기효능감[10,11], 비판적 사고성향[8,9,12], 학습만족도[9,10], 셀프리더십[8], 자기주도 학습능력[12], 학업스트레스[10], 문제해결능력[12]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브루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토론 외에 경청과 존중, 질문과 마무리(쉬우르) 등의 과정을 통해 지식과 관점의 확장, 개방적 태도와 상호작용 능력을 통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2,3,6,8], 소통의 부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 [3,13]과 비대면 실시간 수업[2]에서 하브루타 학습이 의사소통과 동기유발에 효과적인 전략이되며[2], 하브루타 학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 비대면 수업 시 학습매체로서 온라인 플랫폼 활용 가능성을 신장시킨다면 학습자 참여형 수업을 중시하는 현대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학습몰입과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1,13]. 그러나, 실제 대학에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의 많은 부분이 동영상 강좌 중심의 비실시간 수업이고[1], 여건 상 모든 교과목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적용하지 못함을 고려할 때,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하브루타 적용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이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 Choi[3]의 연구에서 하브루타를 활용하여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한 대신 7 문항의 앙케이트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비대면 비실시간 하브루타 활용의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브루타는 경청과 재확인, 반문과 집중공략, 지지와 도전의 모든 하위 과정이 교육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특히 학업성취도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6].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의 효과 역시 학업성취도 향상과 관련되며,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이고, 이 변인들은 상호 영향을 주므로[14-17],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 자신이 학업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하며[17], 학업성취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하게 되므로 학업 수행을 강화시키는 변인이 된다[18].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해결하거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학습에 대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학습과정에만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최적의 심리상태를 의미한다[19-20]. 특히 대학의 비대면 수업은 강의를 듣기 위해 컴퓨터 접속 후 장시간 여러 과목의 강의를 듣다보면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하브루타 활동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을 강화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교수자의 역할이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개별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운영하는 교과목 못지않게 실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이 동영상 강좌 중심의 비실시간 수업임[1]을 고려할 때,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을 온라인 플랫폼인 패들릿(padlet)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향상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온라인 교수학습법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패들릿을 활용한 하브루타 활동의 전·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 전·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정도를 측정하고 비교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적용하였다.

###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에 재학하며, 기본간호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8개 분반 간호학과 학생 중, 교수자가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을 진행하는 4개 분반 학생이었다. 하브루타 활동은 강의 계획서 상 성적에 미반영 되었으며 코로나19로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어 중간고사 이전의 수업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되었다. 표본 수 산정은 G-power 3.1.2 software를 활용하였고, 효과크기 .40, 검정력 .80, 유의수준 .05(양측검정)로 정하였을 때 최소 대상자는 41명이었다. 하브루타 활동 전,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해당 분반 학생들에게 Google drive에서 작성한 온라인 설문 링크를 SNS에 5일간 공지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76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 응답이 이루어졌고, 3회의 하브루타 활동이 종료된 한 주 뒤인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 사전조사에 응답했던 학생들만이 온라인 사후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설문시작 전 요청했으며, 설문지의 응답란에 사전응답에 'Yes'로 체크한 경우에만 그 다음 항목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사후조사에 72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 하브루타 활동을 1회나 2회만 실시한 3명을 제외한 최종 69명을 대상으로

로 분석하였다(Fig. 1 참고). 하브루타 활동 전후 온라인 설문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대학의 연구자가 진행하였고, 설문 앞부분에 익명보장과 응답결과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기재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문항을 '필수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회수된 설문내용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으로 제외된 경우는 없었다.

### 2.3 연구도구

#### 2.3.1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는 Rubin & Martin[21]이 개발한 대인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의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개념에 Hur[22]가 수정·보완한 포괄적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범위는 최소 15점에서 최대 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Hur[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 2.3.2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Kim & Park[23]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과제난이도 선호도 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구성된 총 28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 2.3.3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몰입 측정도구는 Kim[24]이 개발한 28문항을 Kim[25]이 총 14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4 연구진행절차

2.4.1 사전조사

본 연구 진행 전 하브루타 활동을 적용하지 않는 분반의 동일 학년 간호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들릿을 활용한 하브루타 활동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패들릿 사용에 어려움이 없었고, 패들릿을 활용해서 온라인 상에서 하브루타의 유형 중 ‘친구가르치기’와 ‘문제만들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교과목은 중간고사 전까지 LMS 녹화강의로 진행되

었고, 수업 첫 주차 때 하브루타 활동과 업로드 기한 및 패들릿 활용법에 대한 상세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였고 Google drive에서 작성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하브루타를 진행하지 않는 타대학 연구자가 온라인 설문 링크를 분반 대표의 카카\*\*에 올려 각 반에 공유 및 배포하였다. 설문 링크와 함께 자발적 참여와 익명유지, 불이익 없음 등을 기재하였고, 76명이 사전조사에 응답하였다(Fig.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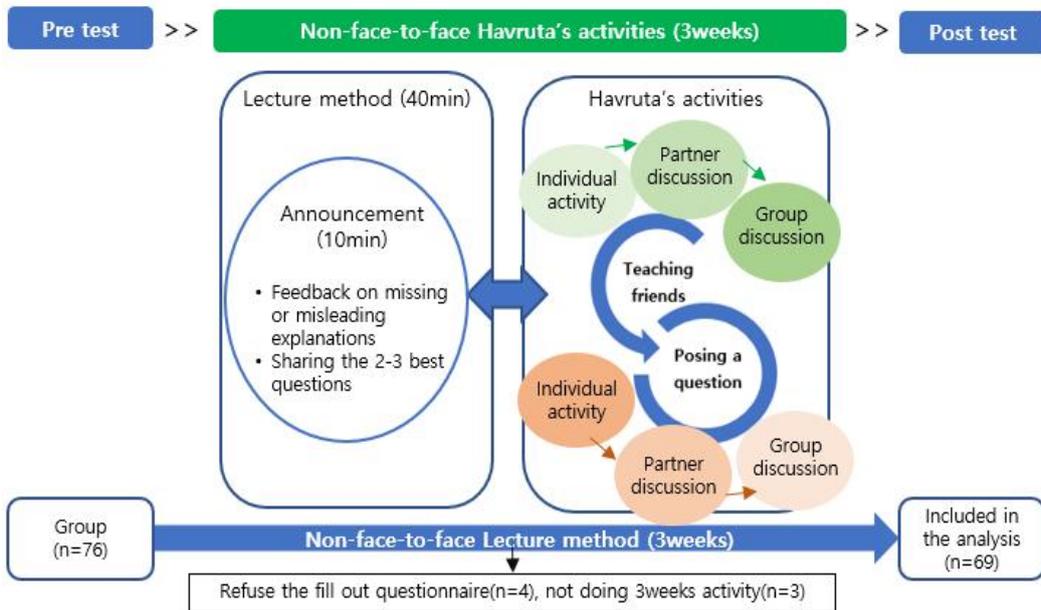


Fig. 1. Flow diagram of the study participants

Table 1. The Procedures of Non-face-to-face Havruta's activities

Type	Theme	Tools	Activities	Deadline
Teaching friends	1. Individual activity		After taking the major course, study each one and fill out the activity sheet	Within 4 days of uploading the recorded lecture
	2. Partner discussion	Padlet	Record and explain to a friend (upload activity sheet and recording) : Listen and ask questions in comments	
	3. Group discussion	Padlet	Record and explain to a friend (upload activity sheet and recording) : Listen and ask questions in comments	Within 5 days
	4. Announcement	LMS	Professor encourages and gives feedback on missing or misleading explanations, Proceed to the next class	
Posing a question	1. Individual activity		After taking the major course, study each one, make one problem and write it on the activity sheet	Within 4 days of uploading the recorded lecture
	2. Partner discussion	Padlet	Record to a friend and explain the problem and the reason for making it (upload the activity sheet and recording): Choosing good questions	Within 5 days
	3. Group discussion	Padlet	Sharing the questions selected in the pair discussion (upload activity sheets and recordings) : Pick the best question from the group	
	4. Announcement	LMS	2-3 Best Questions Selected by Professor share all	

#### 2.4.2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의 적용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은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총 3회로 구성되었고, 매주 50분의 녹화강의 수강 후 다음 녹화강의를 위해 5일 이내에 하브루타 활동이 이루어졌다. 1주차 오리엔테이션 때 하브루타 활동과 패들릿 활용, 모둠원 및 활동내용 업로드 기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하브루타 수업 적용 시 두 개 이상의 통합된 모형을 도입했을 때 학습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6], 본 연구에서는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와 질문중심 하브루타를 진행하였다.

하브루타 활동은 2주차, 5주차, 7주차에 진행되었고, 2회는 상차간호, 1회는 영양간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오리엔테이션 때 학생들에게 LMS를 통해 미리 3회차의 활동지를 배부하였고, 각 회차에 비대면 강의를 수강한 후 활동지를 완성하고 '문제만들기'와 음성녹음을 활용한 '친구가르치기'를 한 후, 패들릿에 업로드 하였다. 본 교과목은 국가고시 과목에 해당되며, 토론이나 논쟁에 익숙하지 않고 일면식도 별로 없는 학생들에게 비대면 진행으로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리가 있어 교수자가 키워드 위주로 중요한 내용을 활동지에 제시하고 학생들이 수업내용과 교재 등을 참고하여 각자 공부하여 활동지를 작성하고 서로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3]. 이는 하브루타는 대화, 논쟁 및 토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청과 존중, 질문과 마무리가 깔려있으며, 두 명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다섯 명 까지도 확장 가능하다 것에 근거하였다[3]. 본 연구에서는 모둠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모둠은 4명으로 구성하였다[11].

하브루타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첫째,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는 수업 수강 후 미리 활동지를 통해 제시된 키워드를 가지고 각자 공부한 내용을 작성한 후 패들릿에 업로드하고 음성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친구에게 가르치도록 하였다. LMS 녹화강의 업로드 후 수강하여 각자 공부를 마치고 4일 이내에 2명의 짝끼리 공유한 후 5일 이내에 다시 4명의 모둠원끼리 서로의 활동지와 음성녹음을 공유하여 댓글을 통해서 질문과 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둘째, 문제만들기 하브루타는 활동지 끝부분에 문제만들기를 하도록 하여 업로드하고 음성녹음에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와 마찬가지로 2명의 짝끼리 만든 문제를 공유하고 댓글로 부연설명과 토론을 하도록 하였고, 다시

4명의 모둠원 간에 공유하고 댓글로 부연설명과 토론을 한 후 모둠별 가장 좋은 문제에 '좋아요(♥)' 개수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하브루타 활동은 그 다음 차시 강의 수강 2일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였다. 분반의 모든 학생은 패들릿을 통해서 모둠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생의 활동결과물과 녹음파일을 공유할 수 있었고 가장 좋은 문제만들기에 '좋아요(♥)'로 피드백할 수 있으며, 각 반별 가장 좋은 문제만들기를 2-3개 선정하여 교수자가 녹화강의 시 공유 및 필요한 보충 설명을 한 후, 다음 차시의 본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교수자는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패들릿 창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활동과 댓글에 '좋아요(♥)'로 피드백 하였다. 좋은 문제만들기에 선정된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패들릿에 질문창을 만들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교수에게 질문하고 교수자는 잘못된 설명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Fig. 1, Table 1 참고).

#### 2.4.3 사후조사

총 3회의 하브루타 활동이 종료된 일주일 후, 온라인 Google의 자가보고식 설문을 활용하였고, 사전조사와 마찬가지로 하브루타 활동을 진행하지 않은 타대학의 동일 연구자가 온라인 설문 링크를 분반 대표의 카카\*\*에 올려 각 반에 공유 및 배포하였고, 사전 조사 응답자에 한해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Fig. 1 참고).

### 2.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 앞부분에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 철저한 익명성, 자발적 동의, 중도 철회 가능 및 설문참여 여부와 성적평가와의 무관함을 기재하였고 모든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사전 설문 참여자에 한해 사후 설문에도 응답해 줄 것을 안내하였고, 온라인 설문의 사전 사후 조사는 하브루타 활동과 무관한 타대학 연구자가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 2.6 자료분석방법

통계 처리는 SPSS 24.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 전후 두 변수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62명(89.9%), 평균 나이는 23.4세였다. 성격은 내향적이 47명(68.1%), 전공과목 만족도는 만족 34명(49.3%), 보통 19명(27.5%), 매우만족 16명(23.2%) 순이었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 31명(44.9%), 만족 24명(34.8%), 매우만족 11명(16.0%), 매우불만족 1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하브루타 수업방식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경우가 55명(79.7%), 패들릿 활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65명(94.2%)이었고, 선호하는 교수학습법으로 강의 62명(89.9%), 토론 5명(7.2%), 발표 2명(2.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M±SD
Gender	Female	62(89.9)
	Male	7(10.1)
Age(year)		23.4±5.86
Personality	Introvert	47(68.1)
	Extrovert	22(31.9)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16(23.2)
	Satisfaction	34(49.3)
	Medium	19(27.5)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11(16.0)
	Satisfaction	24(34.8)
	Medium	31(44.9)
	Dissatisfaction	2(2.9)
Experience with Havruta class	Yes	14(20.3)
	No	55(79.7)
Padlet experience	Yes	4(5.8)
	No	65(94.2)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preference	Lecture	62(89.9)
	Discussion	5(7.2)
	Announcement	2(2.9)

#### 3.2 사전과 사후 변수의 비교

연구대상자의 하브루타 활동 전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3.81 \pm 0.53$ 점 이었으나 활동 후  $0.23 \pm 0.72$ 점이 상승되어  $3.90 \pm 0.68$ 점이었었다( $t=2.63$ ,  $p=.010$ ).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활동 전  $3.14 \pm 0.54$ 점이었고 활동 후  $0.20 \pm 0.77$ 점이 상승하여  $3.34 \pm 0.55$ 점으로 확인되었다( $t=2.16$ ,  $p=.034$ ). 대상자의 학습몰입은 활동 전

$3.44 \pm 0.60$ 점이었고 활동 후  $0.46 \pm 0.90$ 점이 상승하여  $3.90 \pm 0.68$ 점으로 확인되었다( $t=4.27$ ,  $p<.001$ ).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 전에 비하여 활동 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은 유의하게 상승되었다(Table 3 참고).

Table 3.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pre and post-test (N=69)

Variables	Pre	Po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Communication competency	3.81 ±.53	3.90 ±.68	-.23 ±.72	-2.63	.010
Academic self-efficacy	3.14 ±.54	3.34 ±.55	-.20 ±.77	-2.16	.034
Learning immersion	3.44 ±.60	3.90 ±.68	-.46 ±.90	-4.27	<.001

### 4.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학에서는 불가피하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수업하는 간호학 전공교과목에서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을 구성하여 적용한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본인이 공부하고 이해한 내용을 음성녹음을 활용하여 친구에게 설명하고 친구의 설명을 듣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친구가 설명을 해주어 도움이 되었고, 대면 활동보다 설명할 때의 심적인 부담감은 완화되었으며, 여러 번 반복 녹음해보면서 완성도 높은 친구가르치가 가능하였다고 하였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하기 위해 고민하고 여러 차례 반복 녹음을 하고 친구의 녹음된 설명을 경청하며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 등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실시간 하브루타 활동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찾기가 어려워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면대면 하브루타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유의하다는 Jang[6]의 메타분석 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

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고시 교과목에서 면대면 하브루타를 진행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8]를 지지한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 하브루타 토론 수업을 대학생 교양수업에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유의한 도움이 되었다는 Jeong[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Jeong[2]의 연구에서 온라인 실시간 줌(Zoom)이 모든 구성원의 발표 참여에 한계가 있어 학습보조도구로 패들릿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것과 동일한 도구인 점을 고려할 때, 비대면 하브루타를 진행할 때 패들릿은 적절한 학습보조도구가 됨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어과목에 하브루타를 활용한 온라인 비실시간 수업은 의사소통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강의만족도로 효과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비슷한 효과를 보였던 Choi[3]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Choi[3]의 연구에서는 하브루타 활동을 LMS시스템의 e-Class와 실시간 소통을 위해 카카\*\* 교과목 단체방을 병행했던 점에서 본 연구와 비실시간 방법상의 차이를 갖는다. 또한,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사회과목에서 온라인 비실시간 하브루타 수업이 의사소통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는 선행연구[13]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하브루타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대화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사고해야 하는 특성은 학습자 간의 질문과 답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하브루타가 돋보일 수 있다는 의견[26]과 온라인 하브루타 활동을 통해 잘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소통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2]을 뒷받침하였다. 반면에, 온라인 줌으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하여 90분씩 5회기의 토론수업 진행결과 의사소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11]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이 연구[11]의 제언과 같이 추후 회기를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하브루타 수업의 최종목표인 메타인지 형성을 위해서는 4주 이내의 중재기간이 더 효과적이라는 메타분석 결과[28]와 비판적 사고성향 등과 같은 대상자의 동기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9주 이상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연구[10]를 고려할 때 추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재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기간에 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온라인 하브루타 토의수업 설계 시 학습자 간의 라포 형성과 동기유발을 위한 첨단 기술에 관

심을 갖고 적절한 학습보조도구의 활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2,14]. 다른 교수법들에 비해 하브루타는 손쉽게 접근 가능하며 교과목의 내용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8].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비대면 비실시간 적용으로도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다양한 전공교과목에서 비대면 하브루타 뿐 아니라, 대면 하브루타를 진행시에도 온라인 학습도구를 적절히 활용하여 의사소통능력 향상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질적 자료를 따로 수집하지는 않았지만 하브루타 활동지에 간략하게 기술한 소감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매 회 관찰한 결과 학생들은 기존의 듣는 수업과 달리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를 통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보며 수업의 중요한 내용을 되짚어보는 경험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비대면 하브루타에서도 가능하며, 연구결과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면대면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했던 Jang[10]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온라인 줌을 활용한 하브루타 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상승에 유의하다는 연구를 지지한다[11].

마지막 측정변수인 학습몰입은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 적용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을 통한 학습몰입을 측정했던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논의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이 향상되었다는 연구[9]와 학습자 질문중심 하브루타 수업이 예비 유아교사의 학업몰입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29]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에서 학습몰입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18], 온라인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몰입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야 함을 볼 때[14, 27], 본 연구를 통해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은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상승에 유용한 학습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 가르치기, 짝 토론, 모둠 토론 및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 활동의 전 과정에서 헛수를 거듭할수록 더

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모둠 토론에서 우수한 문제로 선정되기 위해 좋은 문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문제의 질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상위권의 학생들은 핵심을 간파하는 설명과 만든 문제에 친구들의 댓글 칭찬을 받았다. 하위권의 학생들은 상위권의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을 통해 수업이해도가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를 통해서 친구를 가르친다는 사실에 흥미와 책임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향상에 반영되어 연구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하브루타 활동은 효율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때 비대면 진행으로도 학습몰입에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이라고 사료되며, 반복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하브루타 활동은 대면 상황뿐 아니라 비대면 수업에서도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에서 효과적임을 확인한 점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전공교과목에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을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한 단일군 전후 설계연구이다. 연구결과 패들렛을 활용한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t=2.63, p=.010$ ), 학업적 자기효능감( $t=2.16, p=.034$ ) 및 학습몰입( $t=4.27, p<.001$ )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향상 방안으로 간호학 전공 수업에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제한이 따른다. 둘째, 단일군 사전 사후 설계로 대조군에 대한 비교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에 추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등의 유사 실험 연구를 통해 효과에 대한 일반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하브루타 활동을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플랫폼 활

용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브루타 적용 시 대면과 비대면, 비대면 실시간과 비대면 비실시간 간의 효과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무작위 동등성 대조군 연구 및 적용시기, 기간, 회차에 따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공교과목에서의 비대면 하브루타 적용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J. E. Jeong. (2021). Exploring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Havruta to increase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in online classe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31(4), 313-338. DOI : 10.21024/pnuedi.31.4.202112.313
- [2] J. E. Jeong. (2021).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structional design strategies in on-line synchronous Havruta to cultivat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0), 267-281. DOI : 10.22251/jlcci.2021.21.10.267
- [3] J. H. Choi. (2021).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Online Classes Using Havruta. *Japanese Language Society*, 94, 281-301. DOI : 10.21792/trijpn.2021.94.014
- [4] S. B. Kim. (2015).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Shift in College Teaching Methods Through the Adaptation of Havruta-Teaching Methods-Centered Way. *Theology and Ministry*, 44, 389-415.
- [5] S. S. Jeon. (2015). *The best way to study Jewish Havruta's secret*. Seoul : Gyeonghyang BP.
- [6] B. S. Jang. (2018). A Meta-Analysis for the Effects of Havruta Learning in Korea.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6(2), 1-24.
- [7] H. Go, H. D. Min & J. S. Song. (2017). The Effects of Question-Centered Havruta Lesson on the Creative Persona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3), 253-278. DOI : 10.22251/jlcci.2017.17.13.253
- [8] J. H. Ha & H. J. Lee. (2020).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on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 31(3), 337-347.  
DOI : 10.12799/jkachn.2020.31.3.337
- [9] S. H. Lim. (2019). The Effects of Adult Nursing Education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Learning Commit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Using the Havruta Learning Metho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7), 547-554.  
DOI : 10.5762/KAIS.2019.20.7.547
- [10] Y. M Jang. (2020). The Effects of Havruta-bas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n Nursing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7(5), 1366-1377.  
DOI : 10.12925/JKOCs.2020.37.5.1366
- [11] H. S. Park, Y. H. Oh, J. E. Lee & Y. G. Lim. (2021). The Effects of Havruta-based Online Debate on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6(4), 17-22.  
DOI : 10.21097/ksw.2021.11.16.4.17
- [12] M. L. Jeong & E. Jeong. (2020). Effects of Havruta Learning Method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HSS21)*, 11(4), 2269-2284. DOI : 10.22143/HSS21.11.4.160
- [13] H. J. Shin & D. M. Kim. (2016). The Effects of Video and Online Discussion Activities based on Havruta Style in Social Studies Communication Skil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0), 25-32. DOI : 10.14400/JDC.2016.14.10.25
- [14] H. S. Im & E. M. Im. (2021).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Flow and Self-directed Learning that Influences College Online Classes in COVID-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9), 183-194.  
DOI : 10.22251/jlcci.2021.21.9.183
- [15] S. J. Lee. (2011).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2), 235-253.
- [16] C. R. Gil. (2021).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2), 617-626.  
DOI : 10.14400/JDC.2021.19.12.617
- [17]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18] R. W. Ma & E. J. Lee. (2017). Factors Affecting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0), 521-531.  
DOI : 10.14257/ajmahs.2017.10.90
- [19] M. Csikszentmihalyi.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 Harper & Row.
- [20] I. B. Seok, E. C. Kang.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earning Flow Scal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3(1), 121-154.
- [21] R. B. Rubin & M. M. Martin. (1994).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1(1), 33-44. DOI : 10.1080/08824099409359938
- [22]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23] A. Y. Kim & I. Y. Park. (200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 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 [24] J. H. Kim. (2005). A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Learning Flow of Participants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7(4), 275- 301.
- [25] E. S. Kim. (2018). *The effects of NCS-based education appropriateness, self-efficacy, and learning immersion on the satisfaction with educa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osin University, Busan.
- [26] S. Y. Joung & M. S. Kim. (2022). The Effects of Interpretive Leading Questions in Online Havruta Activities-Focused on Pre-service Teachers' Creative Leader Competency-.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3(1), 193-213.
- [27] S. H. Kim & S. Y. Park. (2014).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557-1565.  
DOI : 10.5762/KAIS.2014.15.3.155
- [28] D. I. Kim, S. H. La & H. E. Lee. (2016). A Meta-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Meta-Cognitive Strategic Interventions in Korea: Comparison Between Group-Designed Studies and Single Case Studi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3), 21-48.

- [29] K. N. Choi & H. J. Kim. (2021). The Effects of Learner's Question-Centered Havruta Class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and Learning Commit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 1212-1235.  
DOI : 10.22251/jlcci.2021.21.1.1213

이 지 혜(Ji-Hye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9년 3월~현재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의사소통
- E-Mail : jhlee6@uc.ac.kr

문 숙 자(Suk-Ja Moon)

[정회원]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8월~현재 :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전문직업적 용기, 심혈관 질환자, 교수학습법
- E-Mail : msj@masan.ac.kr